



國立公園의 利用增大

國立公園은 우리의 代表的인 自然風景地이므로 이를 잘 保全하여 子孫에게 물려가며 많은 國民이 探訪利用하도록 國家가 指定, 管理한다.

國立公園에 관한 制度的인 意義가 保全과 利用의 增大에 있다면 이는 곧 保全에 알맞는 利用이어야 하고 利用의 增大을 위한 保全이라야지 利用을 排除하는 保全이나 保全을 어렵게 하는 利用은 마땅히 規制되고 是正되어야 한다.

國立公園制度가 導入되어 10年인 지금에서도 集團의인 遊興地로 利用하려는 傾向이 많은 한편 保護一邊倒로 制度化하려는 配慮가 서로 調和點을 찾지 못한 느낌이 있다.

國立公園을 保全하기 위하여 相當히 많은 利用行爲의 規制가 設定되어 있는가 하면 國立公園地域을 對象으로한 大規模의 觀光團地開發計劃이 樹立되기도 하여 어느 쪽에 더 큰 比重을 두어야 할지 감피를 잡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다.

國立公園指定의 趣旨와 公園地域의 特性으로 보아 한 사람이라도 많은 國民이 探訪하고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 政策的인 誘導와 充分하고 適正한 施設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좁은 國土上에서 景觀의 優秀한 地域을 골라가며 國立公園으로 指定해 두고 國民의 利用을 制限, 規制한다면 이는 餘暇時間이 增大되고 그 內容이 多樣化해가는 時代的要求로 보아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國土가 넓은 나라의 경우에는 따로 餘暇, 觀光都市를 建設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며 오히려 國立公園을 合理的으로 利用하여 代表的인 資源風景地를 保全하여 子孫에게 물려주는 한편 오늘 우리의 餘暇 自然探訪需要도 充足할 수 있는 合理的인 公園利用의 方向을 찾는 것이 國土利用의 立體化와 效率化하는 面에서도 바람직하다.

國立公園指定의 精神이나 公園上의 規定에 바탕을 둔 保全主導의 禁制와 함께 우리의 모든 國立公園을 하나의 對象으로 하여 全國의基準에서의 利用體系와 利用性向등을 設定하는 한편 國立公園內部에서 어떠한 利用行爲가 探訪利用客이나 公園資源의 兩側에 調和될 수 있는 지를 檢討하고 增大되는 利用需要에 適正하게 對處하는 方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國立公園運動의 母體인 國立公園協會는 合理的인 公園利用의 普及을 위하여 國立公園大會등 몇가지의 事業을 遂行하고 있으나 보다 높은 次元에서의 國民運動을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國土利用의 與件을 바탕으로 한 全國의인 國立公園의 合理的인 利用增大 方案을 摸索하려하며 이를 위한 政策當局의 施策立案과 全國民의 參與를 期待한다.

회 장 김 윤 기